

지난해 전북 농수산물 수출 웃었다

2억1967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0% 증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 공격적 마케팅 최선

2017년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도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은 2억 1,967만 달러로 2016년 실적 1억 9,982만 달러 대비 10% 증가했다.

부류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은 수산물이 11,104만 달러로 26.4% 증가, 가공농식품도 6,325만 달러로 25.9%

증가한데 반해, 신선농산물(과일, 곡물, 채소, 화훼 등)은 7.3% 감소한 2,808만 달러를, 축산물은 구제역과 A형발병으로 53.6% 감소한 1,003만 달러, 임산물들은 26.0%가 감소한 725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으로는 파프리카(1,068만 달러), 배(916만 달러), 장미(156만 달러) 등 과채류, 화훼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가공농식품은 면류(1,082만 달러), 비스킷(943만 달러), 맥주(506만 달러), 인삼류(471만 달러), 유자차(370만 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축산물에서는 닭고기가 주요 품목으로 418만 달러를, 임산물은 섬유관(668만 달러)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에서는 마른김(6,208만 달러)과 조미김(4,503만 달러)이 우리도 수출품목의 1,2위를 차지해 전체 수출의 49.2% (1억 801만 달러)를 점유하는 수출 효자 품목임을 입증했다.

전북도는 2018년도의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2017년 대비 10% 증가한 2.4억 달러로 정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과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사드로 인한 중국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 수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농축수산물 및 식품업체 종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 들어 환율 하락, 한미 FTA 재협상 등 농수산물 수출 여건이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있는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밀양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기리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민주백송홀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각 관계부처 장관 등이 밀양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밀양 화재 수습현황 및 후속대책,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2월 임시국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힘 모으기’

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선도 대학, 6억원규모 투자협약 체결

도내 창업기관들이 미래 투자에 나섰다.

전라북도, (주)효성, SJ투자파트너스, 원광대·전북대·전주대 창업선도대학과 6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투자협약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

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창업기업 발굴 ▲투자 연계 ▲실질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협약체결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도내 창업선도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은 혁신형 아이디어·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전라북도, (주)효

성, 전북센터는 ‘기업R 투자 로드쇼’ 등 투자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SJ투자파트너스가 연계사업으로 선발된 9개 창업기업에 최대 1억, 총 6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우리지역 혁신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도내 창업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투자활성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임금체불 꼼작마... 상습사업주 법 집행

고용노동부, 설 명절 맞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다수의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출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같은 체불 취약사업장을 삼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 재산은,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용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

획이다.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저리 용자사업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생계비 금리도 한시적으로 1%p(2.7%→1.5%) 내린다.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은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등을 원하는 전주고용노동지청(063-240-3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민 기자

장명식 도의원, 내달 3일 출판기념회 열어

고창군 동리국악당서 진행

장명식 전북도의원(고창2·사진)이 2월 3일 오후 2시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장명식 집념’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장 의원의 저서는 오랜 세월 묻어 놓은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 출신인 자신의 사업성공기와 고창군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더욱이 고창군민들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알리고 장 의원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 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명식 의원은 이번 출간에 대해 “내 인생의 여정과 집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묵묵히 수행해 온 의정생활을 정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창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책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송지용 도의원, 전북신지식농업인회 감사패 수상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헌신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사진)이 사단법인 전북신지식농업인회 회장(류서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신지식농업인회 류서욱 회장은 “농업 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2017년도 한국 신지식 농업인회 전국대회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동안 송지용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문제를 비롯



해 6차산업을 통한 농업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농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감사패를 수상한 송지용 의원은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이 살아야 하고 농업이 살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과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